

이 모 저 모

회장단회의 개최 9월13일 협회 회의실

한국생약협회는 지난달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95년 중에 개최할 제2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행사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토의.

경동약령시 지정 선포식 시민의 날 기념행사



서울 경동약령시협회(회장·윤영진)는 서울시민의날인 오는 10월25일 9시 경동약령시 1번 아치거리에서 경동약령시 지정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경동약령시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경동약령시 지정 선포식 △기념표석 제막식 △무료진료 투약 △약용주, 한약차 전시 및 시

음회 △약썰기 경진대회 △무료시음회 : 맥주, 영비천 △동대문구 및 경동약령시발전상 사진 전시회 △고적대 퍼레이드, 사물놀이, 농악풍물놀이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

한편 경동약령시협회는 지난 달 29일 협회 사무실 입주식 및 현판식을 거행했다.

한국약용작물학회 제4회 학술발표회



한국약용작물학회는 지난달 2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관에서 제4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에서는 육종재배 품질 분야 등 26개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경산대학교 민족의학자료 박물관 개관

9월16일 경산대학교는 민족

의학 자료박물관 개관식을 가졌다. 박물관은 한의학과를 중심으로 성장한 경산대의 특수성과 전통약령시를 지닌 대구의 지역적 특수성을 살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연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다.

박물관 전시실은 한의학 자료실과 고고역사 자료실로 구성돼 있다. 한의학 자료실에는 국내외의 희귀한 광물약재 70여종을 비롯하여 5백여종의 한의약재와 1백여종의 의료기구 등을 전시함으로써 한의학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우리의학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였으며, 고고역사 자료실에는 인근지역에서 발굴, 출토된 무문토기·와질토기·도질토기 등 시대별 토기자료가 전시돼 있다.

지황생산 실태조사 한약재 수급조절위



오는 12~13일 한국의 약품수출입협회 산하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는 국내 지황의 생산실태를 조사키 위해 지황 재배지를 돌아볼 예정. 수입지황이 들어오기 앞서 국내 재배지황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생약인의소리

무분별한 엑스제 수입자제를

요즘 항간에는, 일부 제약회사들에서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생약제의 대부분을 엑기스로 수입해 오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수입개방화다 뭐다 해서 가뜰이나 위축돼 있는 우리 농민들의 재배의욕을 여지없이 꺾어 놓고 마는 비정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

다. 생약재가 한의원이거나 한약방 보다는 일반 제약업체에서 더 많은 양이 소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통분할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원가가 싸게

먹힌다 하더라도, 멀리 내다보면 제 발등 짚는 일인 줄 모르고 무분별하게 수입해 들여오는 제약업자들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생산자 보호한담시고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 마저도 초재가 아닌 엑기스로 수입해 들여올 경우, 아무런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정연수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401>

수확시기에 수입, 납득안가

저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2만평 지황 재배를 시작한 농민입니다. 얼마전 의약품수출입협회 산하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 지황 5백톤을 수입키로 결정했다는 소문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펜을 들었습니다.

지황은 엄연히, 국내 생산량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족분에 한해 수입해 들어

올 수 있도록 규정한 수급조절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황 재배에 관한 실태조사도 없이, 더군다나 수확시기에 맞춰 수입해 들여오는 처사는 잘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수입결정에 앞서 국내 재배산 지황의 수매방안과 구매협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광해명 <경북 상주군 화서면 신봉리 132>

손쉬운 민간요법

월경통

생리가 있을 때마다 아랫배가 심하게 아프며 허리가 굽어질 것 같고 두통과 불쾌감이 온다. 그리고 맥이 없으며 우울하고 쉽게 피로하며 입맛이 없고 졸음이 오기도 한다. 이런 증상은 모든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인줄 알고 치료에 신경을 쓰지 않는

효능: 천궁은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여 진정 효과를 나타내지만 자궁 근육에서는 확장력을 높여 주고 수축 작용을 증강시켜서 자궁 기능을 항진시킨다. 그러면서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유도하므로 월경통, 산후 복통, 산후 어지럼증, 임신 복통 등을 모두 해소

실제 임상 증례에서 보면 당귀 20그램, 홍화 10그램을 50퍼센트의 알코올 약 50밀리리터에 넣고 48시간이 경과된 뒤 다시 알코올 100밀리리터를 넣는다. 이것을 매일 3번 식사한 1시간 뒤에 3밀리리터씩 복용하는데 생리 때에는 약을 먹지 않았다. 그 결과로 생리통이 심하고 월경이 불규칙하며 자궁의 발육이 완전히 못됐던 54명의 환자가 모두 유효성을 보였다.

생강은 하복부의 냉증을 제거시키면서 정상 생리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터씩 식사 30분이나 1시간 전에 복용한다.

효능: 구절초는 온화한 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복부의 냉증을 제거하고 자궁의 생리를 정상으로 유도한다. 그러므로 생리통과 자궁 발육 부진, 대하증에 유

효한 반응을 일으켜서 생리통을 제거하고 불임증을 치료한다.

이 처방에서 약썩과 생강은 자궁과 아랫배의 냉감을 해소시키고 생리를 조절한다.

당귀, 보혈제로 혈관수축력 높여주고 피 흐름 신속하게

경우가 많다. 또한 격심한 증상을 호소할 때에는 진통제를 투여하여 진정시키지만 근원적인 치료는 아니다.

천궁과 당귀, 생강

사용법: 천궁과 당귀를 각각 10그램씩 배합하고 생강을 2그램 넣어서 물 세 사발을 붓고 2시간 끓여서 그 물을 공복에 마신다.

시킨다. 특히 당귀와 배합되었을 때에는 그 기능이 몇 배 증가한다.

당귀는 보혈제로서 혈관의 수축력을 높여 주고 피의 흐름을 신속하게 하므로 자궁 근육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자궁의 발육부진, 월경통, 월경 불순에 현저한 반응을 보이며 진정, 소염 작용도 나타낸다.

구절초와 썩, 밤, 생강

사용법: 가을에 구절초를 채취하였다가 건조시킨 다음 약으로 사용한다. 먼저 구절초 600그램에 물을 1시간 끓인 뒤 약 찌꺼기를 버리고 그 달인 물에 약썩 100그램, 밤 50그램, 생강 50그램을 넣고 다시 1시간 전탕한다. 이 달인 물을 하루 3번, 한 번에 50밀리리



◇일당귀